

친환경 아이스팩 처리법 제안

익산 소비문화 확산... 9000여개 수거 전통시장 등 제공

익산시가 친환경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세트 등 배송 증가로 아이스팩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박스 등에 동봉되는 아이스팩 처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아이스팩 수거? 세척 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복지센터 8개소(합영읍 동산동, 모현동, 영등동, 삼성동, 어양동, 영등2동, 신동)에서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있으며 7월 말 현재 8천727개를 수거했다. 무게로는 4톤이 넘는다.

수거량 대비 재활용 비율은 63%로 수거된 아이스팩 중 재활용이 가능한 5천588개를 시민단체와 협업하여 세척



과 소독작업을 거친 다음 전통시장, 신선 식품업체 등 16개소에 무료로 공급했다.

시민들은 가정에 보관하던 썰 유형의 아이스팩을 8개 행정복지센터 중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방문하면 아이스팩 5개당 20리터 종량제봉투 1매(단 1인 월 3매까지)를 인센티브로 제공받는다.

아이스팩 배출시 종이 재질, 오염된 아이스팩 등은 재활용이 되지 않으므로 종량제봉투를 이용해 배출하면 된다.

시는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스팩 신규 구매비용 절감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 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아이스팩 수요처를 연중 모집 중으로 아이스팩이 필요한 시민은 언제든지 청소지원과 ☎063-869-5471)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아이스팩 재사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와 육군부사관학교가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익산사랑 바른주소갓기' 범시민운동에 적극 나선다.

익산시 여행 정보 홍보

육군부사관학교, '익산사랑 바른주소갓기' 범시민운동 시동

익산시와 육군부사관학교가 입교생들을 대상으로 '익산사랑 바른주소갓기' 범시민운동에 적극 나선다.

시는 29일과 30일 육군부사관학교 통합입교식과 부사관 임관식에서 부사관 교육생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익산시 전입 혜택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육군부사관학교 통합입교식이 열린 실내체육관과 임관식이 열린 부사관 학교 대연회장 앞에 홍보 부스를 설치해 익산시 전입 혜택과 행복? 익산 2630, 인구정책 분야별 주요사업(주택, 청년·일자리, 출산·보육, 문화·환경, 귀농·귀촌) 등 익산시민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을 홍보했다.

이는 인구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익산시의 특단의 대책으로 28만명 인구 및 호남 3대 도시 위상 회복을 목표로 '익산사랑 바른주소갓기' 범시민운동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익산사랑 바른주소갓기' 범시민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인문 등 모든 분야에서 익산 거주하며 다른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른 주소소를 갖도록 해 인구를 증대 시키 위한 운동이다.

시는 전국적으로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출생보다 사망이 증가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익산형 인구정책이 전국 모범사례로 인정되어 인구감소 대응유공 국무총리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인구는 우리 모두의 삶과 긴밀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익산시민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익산사랑 바른주소갓기' 범시민운동에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문화도시 시민분업 조성 전직원 적극 추진

정현을 익산시장, 28만 인구 사수... 시민·사회단체 동참 호소

정현을 시장이 29일 오전 열린 간부 회의에서 "문화도시가 '시민 분업'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12월 제3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담당부서 뿐 아니라 전부서가 함께 연계해 사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이 문화도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이번주 아홉간 문화도시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을 추진하며 올해 10월에는 국화축제 기

간 동안 문화도시 관련 제1회 보물창기 축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현을 시장은 28만 인구 사수를 위한 인구정책을 행정과 시민·단체 모두가 힘을 합쳐 필사의 각오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 시장은 "인구 정책의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책을 계획대로 적극 추진해 인구 28만 사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한 마음 한 뜻으로 28만 인구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정 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고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운용은 지역 경제 미중몰이 될 수 있다"며 "그간 추진해 온 지역업체 우선 발주 고강도 조치와 더불어 추석전 예산집행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최대한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정 시장은 추석을 맞아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깔끔한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 도로변 제조직업, 쓰레기 및 불법 현수막 수거 등 시가지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익산=이재춘 기자

2022년 군산문화재야행(夜行) 성료

3년만에 온오프라인 동시 추진된 군산문화재야행(夜行)이 군산의 대표 야간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군산내항역사문화공간과 원도심 일대 문화재 거점구역에서 개최된 '2022년 군산문화재야행'에 관람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오랜만에 군산 원도심 문화재 야행 구간에 가족과 젊은 인파들로 넘쳐나면서 불야성을 이루며 여름밤을 즐겼다.

평소 문화제가 문을 닫는 6시 이후 관광객 및 시민들의 발길이 뜸했는데 1년에 단 한번 문화재 야행이 개최되는 시기에만 볼 수 있는 진풍경이다.

시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오프라인 프로그램이 축소되면서 현장을 찾는 관람객 수가 줄었지만 올해는 약 5만 7천여명의 관람객이 참여한 것으로 보고있다.

문화재 답사 온라인 예약의 경우 조기에 접수 완료됐고, 현장 접수를 포함해 1천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 문화재 만들기 체험의 경우 7시



이전에 11시까지 체험예약이 마감되는 등 그 인기를 과시했다.

원도심 내 상가들과 연계한 야식 프로그램은 원도심 내 62개 상가들이 야행과 함께하고, 그 중 52개 상가가 밤 11시까지 연장영업을 실시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추석 명절 대비 537억원 신속 집행

익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재정자립을 빠르게 집행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나선다.

시는 추석 명절 전까지 사회복지 분야 취약계층 지원 234억원, 각종 공사·용역·물품 대금 등 86억원, 기타 경상직경비 217억원 등 약 537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시는 추석 전인 9월 초까지 자금 집행을 집중하기로 하고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예산 집행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금지급은 임금·하도급 등을 하도급 지급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지급해 하도급업체 임금 체불·임금 유류,

대금지급 지연을 미연에 방지한다.

특히 계약업체들이 명절 전에 자금 소요가 많은 것을 감안 선급금과 기성금 청구에 대하여는 즉시 대금 집행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원활한 추석 명절 자금 집행을 위해 정기예금 만기도래 예정액을 포함하여 560억원을 대기자금으로 관리하고, 지방세 등 자체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을 추가 확보하여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 수요가 많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종 대금 등을 조속히 지급하여 넉넉하고 즐거운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야간경관 조성사업 관광객과 시민들 호응

군산시가 꾸준히 실행하고 있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조명등 설치로 어두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불거리 조성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위축되어있는 시민들에게 위로를 전달하고 시민안락까지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신항도시숲 공원 일부에 설치한 다양한 공간구조를 이용한 체험형 야간경관조성사업에 힘입어 옛 동네의 이름을 간직하고 있는 대규모 옹벽에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소룡동 가로경관개선사업은 월명공원과 소룡동의 스토리를 담은 벽화를 설치해 시민들의 주·야간 보행 환경 개선 및 불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군산=김판근 기자

군산체력인증센터, 5기 온라인 회원 모집

군산체력인증센터가 시민들의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5기 온라인 체력증진교실 회원 모집을 시작했다.

회원모집은 지난 22일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반별 5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5기 온라인 체력증진교실은 오는 9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 8주간 오전반·오후반 2개의 반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오전 기본반(월·수·금 09:30~10:20), △오전 심화반(월·수·금 10:30~11:00), △오후 기본반(월·수·금 14:30~15:20), △오후 심화반(월·수·금 15:30~16:00)으로 진행된다.

기본반 운동프로그램은 '밴드를 이용한 근력 및 유산소 운동', 심화반은 '체력향상을 위한 고강도 트레이닝'이라는 주제로 운영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출석 이벤트, 대면체력증진교실 등 다양한 이벤트로 회원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 등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